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

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

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10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조국

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들어총구령을 내리였다.

장중한 애국가주악에 이어 꽃바구니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총참모부, 총정치국, 인민무력부와 군중, 군단급단위 명의로 된 꽃바구니,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이어 노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가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에 용약 펼쳐나선 유명무명의 렬사들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새 세대 청소년들과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애국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
경기를 보시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두 팀은 조선로동당의 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꾸준히 연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였다.

경기에서는 4.25팀이 압록강팀을 이겼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배구선수들이 수준이 높은 경기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경기성적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은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

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전승절 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그들을 축하하시였다.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7.27행진곡》,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관현악

과 노래편곡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남성합창 《근위부대자랑가》, 남성독창 《그날의 15분》, 관현악 《병사의 발자욱》, 남성독창 《군항의 저녁》,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남성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끝나지 않은 생》, 남성합창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 남성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종목들이 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적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불패의 군민대단결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트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또다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트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 발사훈련에는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들의 현 배치상태와 그를 타격소멸할수 있게 가상하여 세운 발사계획을 보아주시신 다음 로켓트발사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이날 훈련에서도 화력타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로켓트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 주체적인 로켓트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발사훈련을 많이 진행한 결과 이제는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타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하시면서 전승절을 맞으며 더친 이번 화력타격훈련의

목숨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파도 같다고 하시며 전략군의 거듭되는 훈련성파에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는 결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낼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놈들이 7.27을 맞으며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패전에서 교훈을 찾게 대신 명분도 똑똑하지 못한 오바마의 《포고문》과 박근혜의 그 무슨 《대통령기념사》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

키는 해피한 광대놀음까지 벌리고있다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체되었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력사적으로 뛸대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였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축 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

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시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무리들을 하루빨리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